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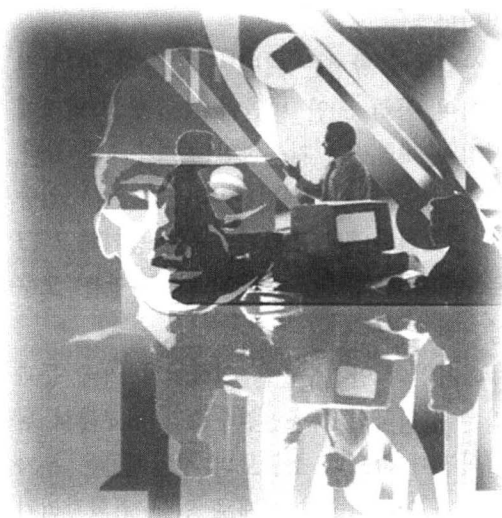
안전보건 의식 수준과 향상방안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노 순 규

1. 안전보건의 수준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다. 더구나 국민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및 보건의식 또한 놀라울 정도로 희박하다. 작업현장에서 다치거나 병들었을 경우에도 재수없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운명론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근로자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원칙을 무시한 안전의식의 결핍이 큰 참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공사자 및 감독기관의 안전의식,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관행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보건 의식 그 자체는 변화된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지하철이 진입할 때 안내방송에 따라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막상 열차가 진입하면 두걸음 다가서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출입구가 혼잡하고 열차안에 있던 승객이 내리기전에 밀치고 들어가는 등 무질서가 난무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안전의식 및 질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전의식을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며칠 전 폭우 때문에 몇 사람이 떠 내려가 희생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노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다행히 어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무재해 '깃발'이 휘날린다. 또 무재해를 기원하는 '표어'도 눈에 띈다.

무재해의 열기가 뜨거운 작업현장으로 느껴진다. 일부 작업현장에서이지만 안전모, 안전화의 착용이 생활화되었고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도 보편화된 느낌이다. 그와 같은 작업현장에서는 적어도 세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재해기 계양 및 부착은 노사 모두가 재해없는 사업장 조성의 염원으로 해석된다.

둘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예전과 달리 자신의 안전은 곧 가정의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그들의 의식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사업주의 인간존중 및 생명존중을 중히 여기는 경영철학을 읽을 수 있다.

2. 안전보건 의식의 향상방안

안전보건 의식고취는 노사는 물론 정부, 안전관련 및 보건담당단체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안전 및 보건 수준의 현주소는 선진대열에서 낙후되었으며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한 듯하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및 보건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행복까지 빼앗아가는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생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안전교육' 및 '보건교육'에 달려있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근면과 성실 그리고 근로자의 피와 땀도 한뭇을 단단히 차지했으나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교육이었다. "교육은 곧 생명이다"는 가치관의 전환으로 지속적인 교육만이 무재해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아직도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된 의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범국민적 차원의 캠페인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영자도 안전시설 및 보건시설 설치 등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한 보다 적극성을 띠어 근로자의 생명을 내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기가 일부 업종에서 호전되면서 조업가동률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재해율 및 사망률 모두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안전수준은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의 자율안전수준과 비교해서 뒤떨어짐이 없으나 소규모의 사업체들은 투자여력과 안전기술의 한계로 인해 위험관리가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다.

안전보건은 인간존중의 근본이념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관리하는 작업장 및 사업장에서 “내 가족이 일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순찰을 통해 위험을 찾아내고 그 위험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표지와 안전수칙을 제작 및 부착하여야 한다. 또 반복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을 위한 행동을 습관화시켜 실천하는 태도를 형성해야만 비로소 안전보건의 확보될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가 합심하여 튼튼한 안전보건의 토대위에 안전보건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생명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구현을 위한 기초안전과 보건확보 여건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영자와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행동변화는 일이나 활동을 포함한 생활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안전 및 보건의 아무리 행동변화를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식이나 행동을 갖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행동의 변화과정에는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천능력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3. 노사협력 및 제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전확보,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쾌적

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규정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생명이나 건강과는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은 어떤 이유로도 혹은 어떤 대가와의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일 것이다.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웠다고 해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도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한 실업자는 잠시 후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그 가정도 행복을 회복할 수 있지만 다치고 병들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행복은 되돌리기 어렵다.

우리의 산업현장은 그동안 물질적 투자를 많이 하여 가시적 위험요인과 재해율을 상당히 줄였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특히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은 선진국의 5배 이상 높은 실정임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경영자는 현장에서의 작업이 하기 좋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좋은 작업이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위협 및 건강상 유해한 사항이 없을 것, 작업의 진행이나 일정한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 작업 자체가 용이하고 쉬울 것 등이다. “안전과 보건의 바로서야 국가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 모두는 서로 협력하여 안전보건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